

이기는 삶

꿈을 이루려면



사람마다 꿈이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드물다. 꿈 즉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에 돌처럼 굳어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견어내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肯定的)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처했던 슬한 어려운 상황(狀況)도 어떻게든 넘어왔듯이 내가 속한 조직이나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며 항상(恒常) 긍정적(肯定的)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말을 듣도록 하라.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하루하루를 계획성(計劃性) 있게 생활(生活)해야 한다. 자신(自身)이 가진 한정(限定)된 시간(時間)과 에너지를 짜임새 있게 사용(使用)해야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단순히 잘해야겠다는 결심은 도움이 안 된다. 마음이란 변덕스러운 것임을 명심(銘心)하고 계획(計劃)을 세워서 생활(生活)하도록 해야 한다.

작은 성취감이 나를 희망으로 이끄는

법이다. 성공(成功)의 경험(經驗)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라. 성공하는 삶은 대박이 아니라 축적(蓄積)이다. 단번에 성취(成就)를 바라겠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可能性)은 아주 낮다. 성공(成功)의 경험(經驗)을 하나하나 축적(蓄積)하는 자세(姿勢)와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소망(所望)하는 목적지(目的地)에 다다를 수 있다.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금(早急)하거나 화내지 마라. 무슨 일이든 화내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가족(家族)이건, 직장(職場) 동료(同僚), 혹은 상사(上司)이건 다른 사람을 불안(不安)하게 만드는 습관(習慣) 가운데 하나가 까닭 없는 조급증(躁急症)과 화(火)를 내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重要)하지만 주변(周邊) 사람들에게 늘 예상(豫想) 가능(可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배우고 익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學

習)은 일종(一種)의 습관(習慣)이자 습성(習性)이다. 학습(學習)은 새로운 자극(刺激)을 가져다주고 그 자극(刺激)은 변화(變化)를 이끄는 원동력(原動力)이 된다.

타인(他人)을 존중하고 배려(配慮)하고 격려(激勵)하라. 사람들과의 인연(因緣)을 소중(所重)히 여기는 것은 인간(人間)으로서 당연(當然)히 지켜야 할 일이지만 훗날 예상(豫想)하지 않은 큰 행운(幸運)을 가져다주는 요인(要因)이 되기도 한다. 매사 책임감(責任感)을 가지고 행동(行動)하라. 권한은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라. 건강(健康)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늘 감사(感謝)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시대(時代)에 나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축복(祝福)받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 자신(自身)이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感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늘 감사(感謝)해야 하는 이유(理由)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생활(生活)을 하도록 하라.\*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에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주체 의식이다. 나라는 의식이 자꾸 넘어뜨려 자유율법을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되는 나라는 주체 의식을 짓이키기도 바쁘는데 어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는가, 남이아 전보대로 이빨을 찌르든 말든 내 갈 길이 바쁘고도 상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이긴자가 되기까지 불경이나 고서를 막론하고 심지어 성경도 한 번을 완전히 통독해본 적이 없다. 이 루어져 이긴자가 되고 나니가 성경이고 불경이고, 고서고 모조리 환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꾸준하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운동 습관이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요? 실내에서 즐기는 요가 여행으로 무더위를 이겨 보실까요?

서서 허벅지 앞쪽 강화!!!

효능: 허벅지와 고관절의 유연성 효과, 근력 강화.

주의: 근력이 약하거나 노약자는 벽, 의자 등 안전하게 기대거나 잡고 해도 된다. 동작 전에 손발을 털어 꼭 준비운동을 한다.

동작①: 자연스럽게 서서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뒤로 접어 접은 발을 뒤로 들어 올린다. 30~50초 유지. 좌우 교대로 5회.

동작②: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은 후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들어 올린다. 30~5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며 허벅지 앞쪽 근육의 자극을 느낀다. 좌우 교대로 5회.

앉아서 허벅지 뒤쪽과 안쪽 강화!!!

효능: 다리 엉덩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하고 평소 잘 쓰지 않는 허벅지 근육을 이완시켜 하체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을 예방한다.

주의: 자신의 능력 따라 실시한다.



동작③: 오른쪽 발꿈치를 바닥에 댄 채 완전히 뺀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깊게 앉은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한다. 좌우 교대로 5회.  
동작④: 오른쪽 발꿈치를 바닥에 댄 채 완전히 뺀고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깊게 앉은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한다. 좌우 교대로 5회.\*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7회

정도령은 진사(辰巳)에 천하를 통일하느니라

세론시(世論視)

嗟我後生 차아후생 不忘血遺 불망혈유 智默天運 지묵천운 朝暮變化 조모변화 信外刺文 신외갈문 國外法官 국외법관 假夷賣官 가이매관 小人能大 소인능대 無量功運 무량양운 有量來運 유량래운 勿念儒書 물념유서 意外出塵 의외출진 伯夷採薇 백이채미 由父洗耳 유부세이 莫貪富貴 막탐부귀 非命橫死 비명횡사 久陰不晴 구음불청

아! 나(하나님)의 후생들이여! 나(하나님)의 피가 그대들에게 전해져 왔음을 잊지 마라. 지혜롭게 묵묵히 천운을 따르도록 해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변화가 극심한 시대다. 외국의 어지러운 글(비 진리의 종교 및 학문 등)과 나라 밖의 법과 벼슬을 신봉하고 오랑캐와 같이 벼슬 장사하니 소인배가 크게 활개 치는구나.

덕과 지혜 없는 자가 판을 치는 이런 세태가 세상을 덮고 있으나 그 운은 가고 이제 덕과 지혜 있는 자가 드러나는 중천의 운이 도래하매 정도령이 오리라.

유가의 책을 읽지 말라. 유림의 부패가 극심하여 유도(儒道)의 운이 다하고 의외의 참된 진리(즉 천당이 아닌 살아 천당을 이루는 진리)가 나오느니라. 백이(伯夷)가 고사리를 캐고 허유가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마음에 새겨 부(富)를 탐하지 말라. 비명횡사하리라. 오랫동안 세태가 어둡고 맑지 못하였도다.

下必謀上 誰爲父母竭孝 하필모상 수위부모갈효 誰作生死判端 수작생사판단 飛龍弄珠 世有其人 비룡농주 세유기인 公察萬物 其姓爲誰不知也 공찰만물 기성爲誰不知也 公賢萬物 其姓爲誰不知也 公賢萬物 기성爲誰不知也

橫二爲柱 左右雙三 횡이우주 좌우쌍삼 勿恨其數 물한기수 勿追衣 물상추의 又爲其誰 우위기수

아랫사람은 반드시 위사람을 받들어야 하건만 누가 있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누가 있어 생사판단을 하겠는가? 하늘을 나는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듯 세상에 그 분이 있어 공의롭게 만물을 살피시지만 그 분의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횡이우주(橫二爲柱) 좌우쌍삼(左右雙三)은 비(非)자의 파자이다. 그 운수가 아니라 한탄하지 마라. (非勿恨其數 비물한기수) 세속적인 신분상승을 추구하지 말라. 웃은 신분을 상징한다.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그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인가?

如短如長 種德半白 여단여장 종덕반백 久粧弓磨箭 大小白之石 구장궁취마 대소백지석 구장궁취마 대소백지석 大小白何爲 河洛之數 대소백하위 하락지수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

나이가 적은 듯 많은 듯한 50세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살 '참 인간 종자'를 구하는 덕을 천하에 퍼도다. 종(種)은 '참 인간 종자'이며 덕(德)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덕이다. 6도 81공 정도령은 50세에 무극대도

를 완성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천지공사를 하신다. 4도 63공이 되는 강증산 선생은 '대두목에게는 이윤의 도수가 붙어 있다.' 고 하였다. 대두목이 곧 6도 81공 정도령이시며 이윤의 도수는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年而知四十九年之非)에 있으니 즉 나이 오십이 되어 사십 구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고사(故事)로서 81공 정도령이 50세에 대도통을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정도령은 오랫동안 마귀를 죽이고자 활을 다듬고 돌을 갈아왔으니 대소백인 양백 십승인이 되셨다.

대소백은 무엇인가? 하도낙서의 수리를 말한다. 하도낙서의 각각의 중앙5수를 합하면 10수가 된다. 대소백이 양백이고 하도낙서의 수이니 10수가 나오는 것이다. 백(白)자에서 산(山)자를 구부리면 장인 공(工)자가 나온다. 산(山)자 두 개를 세로로 연달아 쓰면 출(出)자가 되고 티를 없애면 십(十)자가 나온다. 그 십(十)자가 양백이며 양백에서 오십 십승인(정도령)이 참 인간 종자를 구하시는 것이다.

백목쌍사문월촌토(白木雙絲門月寸土)는 낙한사(樂閑寺)이니 지상낙원을 표현한 말이다. 백목영목쌍사문(白木靈木雙絲人)은 백목은 영목이며 신령한 나무로 표현한 정도령이 된다. 낙인(樂人=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사는 사람)의 파자이다. 지상낙원에 계시는 분으로서 81공 정도령을

뜻한다. 모든 사람의 죄를 떠맡아 하나로 합치는 궁공인(심승인)이요. 진사(辰巳)에 성인출(聖人出)이라는 말대로 정도령은 진사에 나오셔서 천하를 통일하리라.

復何在洲江兩舍 부하재주강양합 白一如亡一人日 비백일망일일비 世事何然 세사하연 不變仙源 불변선원 活萬非衣活千弓長 활만비의활천궁장 此我後生勿慮 차아후생물려

다시 말해서 5대양 6대주 동서양을 통틀어 이런 분이 어디 있었는가?

백이면 백, 하나같이 망하였고 오직 6도 81공 정도령 한 분만 성령(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빛)으로 거듭나시었도다. 세상 사는 어떠한가? 선(仙)의 원천은 불변하나니 만(萬)을 살리는 비의(非衣) 천(千)을 살리는 궁장(弓長)이 나오리니 나(하나님)의 후생들이여! 염려하지 마라. 비의(非衣)는 죄인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빛)의 몸을 말하며 화우로 삼봉태인이 되는 것이다. 궁장(弓長)은 마귀를 박멸소탕하는 궁공 즉 백십승을 뜻한다. 비의와 궁장은 결국 같은 의미로 6도 81공 정도령을 의미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10)3661-9025 양평제단 : (010)2945-8254 Sydney : (006)0415-727-001
안성제단 : (031)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평택제단 : (010)7516-1591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489-9343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神戶祭壇 : (078)862-9522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下關祭壇 : (0832)32-1988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